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반도체 투매에도, 유가 및 금리 상승세 진정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8일(화)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8.9%), 샌디스크(-14.3%), 인텔(-5.9%) 등 반도체주 투매현상 출현에도, 미-이란 휴전 MOU 복구 기대감에 따른 WTI 4%대 급락, 미 10년물 금리 하락 등 매크로 환경 개선에 힘입어 헬스케어(+2.3%), 필수소비재(+2.0%), 소재(+1.7%) 등 여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1.0%, S&P500 +0.2%, 나스닥 -0.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5%).

한동안 매크로상 부담을 안겼던 미-이란 갈등은 지난 주말 중 공격 중단에 이어 중재국의 주도하에 양국간 휴전 MOU 복구 모드로 들어간 상태. 이로 인해 WTI 유가는 70달러대로 재차 레벨 다운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증시 중립 이상의 요인.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이 7월 초와 같은 강대강 구도에 다시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판단.

내일 새벽에 결과 발표 예정인 7월 FOMC 역시 증시에 중립 혹은 중립 이상의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케빈 워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판단 변화를 통한 9월 금리인상 예고 신호 등장 여부가 중요해진 상태. 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미-이란 갈등 완화에 따른 유가 하방 압력 등을 고려 시, 시장의 예상 범주를 넘어서 매파적인 회의로 끝날 가능성이 낮을 전망. 이보다는 오늘부터 예정된 국내 반도체주, 미국 빅테크 업체들 실적을 통해 AI 수익성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중국업체의 DUV 노광장비 개발 악재 등으로 급락 출발한 이후 장중 외국인의 대규모 투매 여파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10%대 급락(코스피 -10.8%, 코스닥 -7.7%).

금일에는 전일 10%대 폭락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 속 미-이란 협상 기대감, 7월 FOMC 경계심리 완화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전일 미국 증시에서 중국발 악재, AI 수익성 우려 등으로 반도체주가 동반 급락하기는 했으나, 이는 전일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됐기에, 전일 미국 반도체주 약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또한 장 시작전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컨센서스 64조원) 컨센 상회 여부, 컨퍼런스콜을 통한 DRAM 및 NAND 수급 전망, LTA 구체화 여부 등이 금일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증시의 회복 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한편, 전일 하락 배경을 복기해보면, 1) 중국산 DUV 노광장비 양산에 따른 중국 메모리 업체 증설 우려, 2) 코스피 120일선 이탈, 3) 주 후반 예정된 반도체,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경계심리로 설명이 가능. 다만,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것이 아닌, 시장의 기초체력과 투자심리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기존 우려가 과도하게 증폭된 데서 기인. 주도주들이 고점 대비 40% 안팎 하락하면서 체감 손실이 커졌고, 이는 추가 투매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됐던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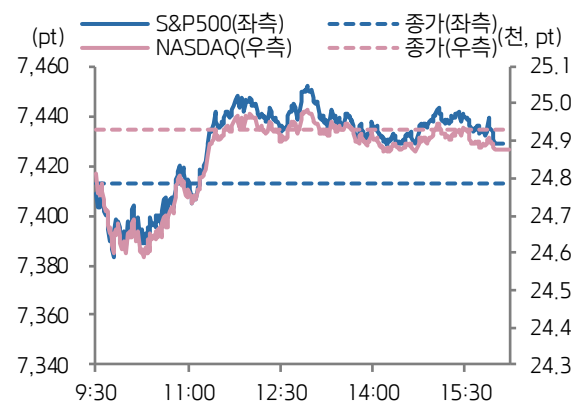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200일선인 5,600pt대 지지 여부가 관건. 투자심리 냉각을 고려하면 해당 지지선 터치 가능성은 열려 뒤야 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역대급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시기. 실제로 전일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4위이며, 7월 누적 하락률은 28.9%로 1990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1위에 해당될 정도로 과매

도 성격이 짝기 때문. 과거 비슷한 폭락이 금융위기, 전쟁, 버블 붕괴 등 시스템 위기에서 나타났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신호가 뚜렷하지 않음. 메모리 피크아웃, 중국의 증설 경쟁, 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존재하지만 아직 잠재적 위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재 낙폭은 과도했다고 판단. 지난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 상승 자체가 문제였던 적이 있었지만, 주가의 하락 자체가 이제는 상방 요인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

밸류에이션도 진입 매력을 뒷받침. 코스피 선행 PER은 5.1배로 역사적 저점에 도달했기 때문.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27%의 이익 추정치 하향을 가정해도 조정 PER은 약 7.0배에 불과해, 현재의 밸류에이션상 코스피 위치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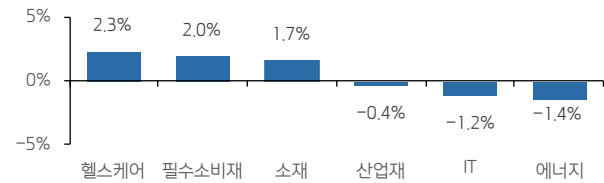
이처럼 주가 및 밸류에이션상 바닥의 신호를 확보한 만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의 촉매(트리거)를 확보하는 일임. 이는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한 이익 신뢰성 회복 여부, 2)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흐름과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 3)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력 축소 지속 여부에 달려 있을 전망.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증시는 매도가 아닌 최소한 보유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반등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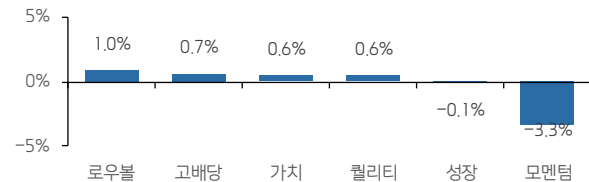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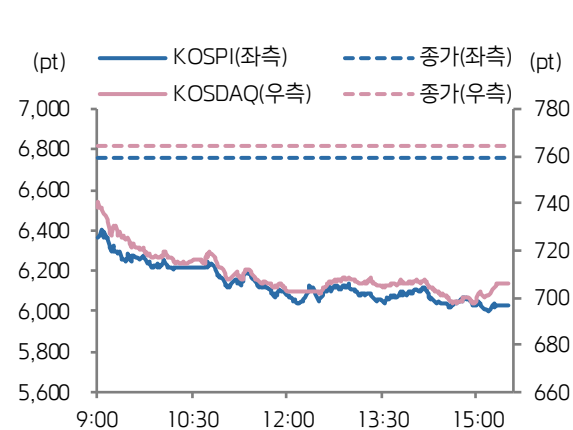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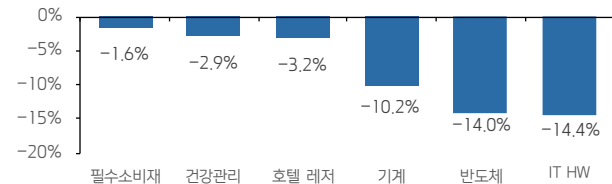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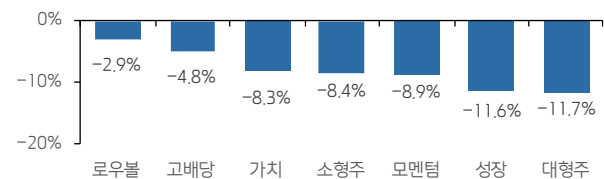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40.08	+0.94%	+25.09%	GM	90.30	+3.75%	+11.04%
마이크로소프트	393.35	+1.09%	-18.67%	일라이릴리	1,220.66	+1.93%	+13.58%
알파벳	333.71	+2.19%	+6.62%	월마트	113.10	+1.22%	+1.52%
메타	593.41	-0.08%	-10.1%	JP모건	357.31	+0.31%	+10.89%
아마존	230.86	-0.23%	+0.02%	엑손모빌	153.04	-1.12%	+27.17%
테슬라	307.44	-0.58%	-31.64%	세브론	187.58	-1.27%	+23.08%
엔비디아	197.01	+0.25%	+5.64%	제너럴일렉트릭	113.10	+1.2%	+1.5%
브로드컴	380.91	-0.6%	+10.06%	캐터필러	840.85	-3.71%	+46.78%
AMD	454.62	-8.15%	+112.28%	보잉	221.56	+4.76%	+2.04%
마이크론	820.53	-8.85%	+187.49%	넥스트에라	89.28	+0.5%	+1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023.66	-10.84%	+42.94%	USD/KRW	1,453.25	-0.97%	+0.96%
코스피200	945.69	-11.55%	+56.06%	달러 지수	101.38	-0.16%	+3.11%
코스닥	705.85	-7.72%	-23.73%	EUR/USD	1.14	+0.16%	-3.06%
코스닥150	1,190.37	-8.53%	-23.07%	USD/CNH	6.77	+0.08%	-2.93%
S&P500	7,428.78	+0.21%	+8.52%	USD/JPY	163.85	+0.06%	+4.56%
NASDAQ	24,876.91	-0.22%	+7.03%	채권시장			
다우	52,747.32	+1.03%	+9.75%	가격	DTD(bp)	YTD(bp)	
VIX	18.21	-2.46%	+21.81%	국고채 3년	3.830	-3.7bp	+87.9bp
러셀2000	2,953.80	+0.2%	+19.01%	국고채 10년	4.292	-3.8bp	+90.7bp
필라. 반도체	11,035.68	-4.49%	+55.8%	미국 국채 2년	4.287	-3.5bp	+81.4bp
다우 운송	21,889.07	-0.8%	+26.11%	미국 국채 10년	4.606	-4.2bp	+43.9bp
상해종합	3,813.32	-1.16%	-3.92%	미국 국채 30년	5.089	-4.8bp	+24.5bp
항생 H	8,436.25	+0.85%	-5.36%	독일 국채 10년	3.104	-2.9bp	+24.9bp
인도 SENSEX	76,765.92	-0.09%	-9.9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289.51	+0.12%	+8.6%	WTI	79.26	-4.06%	+39.03%
MSCI 전세계 지수	1,104.12	-0.36%	+8.82%	브렌트유	84.09	-4.83%	+38.19%
MSCI DM 지수	4,795.67	+0.14%	+8.25%	금	4,098.60	-0.91%	-8.87%
MSCI EM 지수	1,643.33	+0.94%	+17.02%	은	57.30	-2.01%	-18.85%
MSCI 한국 ETF	151.45	-6.05%	+55.78%	구리	632.20	-0.27%	+11.26%
디지털화폐				BDI	2,696.00	-1.71%	+43.63%
비트코인	63,839.19	-1.64%	-27.16%	옥수수	480.50	+1.37%	+4.34%
이더리움	1,916.39	-1.48%	-35.64%	밀	662.50	+0.38%	+21.39%
				대두	1,220.00	+0.51%	+14.61%
				커피	339.40	+4.58%	+6.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